

# 광주 프린지페스티벌도 길거리→온라인

## 광주시, 코로나19 '힐링 프로그램' 유튜브로 전달 25일부터 11월15일 지역업체 중심 78개 단체공연

국내 대표 길거리 예술축제 중 하나인 광주프린지페스티벌도 코로나19 여파를 비켜가지 못했다.

올해는 거리 오픈공연을 접고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안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한 스트리밍(실시간) 송출방식으로 전환해 선보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수백 예술감독은 "올해 페스티벌 주제를 '전환'으로 정했다"며 "축제의 새로운 전달방식인 온라인을 통해 서로 물리적 거리는 유지한 채 정서적 거리는 좁히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예술로 치유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힐링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비롯한 빛고을프린지투어,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는 공연회수에 비중을 두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연의 질을 높이고 기존 문화행사와 연계한 축제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대중성을 지닌 거리예술축제로 구성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온라인 축제로 변경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될 경우 프린지페스티벌과 빛고을프린지투어는 무관객·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페스티벌로 전환해 공모 66개, 초청작 12개 등 78개 단체공연을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녹화영상으로 송출하고, 광주거리예술축제도 행사장과 일자를 늘려 10월 30일부터 7일간 소규모 행사로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 축제 영상은 광주프린지페



스티벌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25일 오후 7시, 26일 오후 4시 ▲10월 9일 오후 7시, 10월 10일 오후 4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토·일요일 오후 4시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이 송출된다.

실시간 댓글을 남길 수 있고 스트리밍이 종료되면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개막일인 25일부터 26일까지는 ▲라틴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선보이

는 재즈카르미나의 '스트링 인 더 라틴' ▲바다 청소부의 지구환경 이야기를 다룬 백승환 씨의 거리극 '인어인간' ▲마임, 마술을 선보이는 '감성광대 제로'의 '감성광대 이야기' 등 13개 공연이 펼쳐진다.

26일 오후 3시 30분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팀클라운의 퍼포먼스 '방역, 방울열차' 공연이 라이브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희기자

## "갑자기 끼어들어서..." 상대 운전자 흥기 위협 50대

인천의 도로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운전자가 자신을 흥기로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말리부 차량 운전자 A(30대)씨는 20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 운전자 B(50대)씨가 흥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차를 몰다가 B씨와 말다툼이 생기자 창문을 열고 차를 세웠으며, B씨가 흥기를 들고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차적 조회 결과 쏘렌토는 법인 차량으로 확인돼 당시 운전자와 일치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말리부 차량이 갑자기 끼어 들면서 쏘렌토 차량 운전자 A씨가 놀라 말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일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제주 무단 이탈 시도한 중국인 4명 집행유예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선원으로 위장해 육지로 보내려던 제주 체류 중국인 일당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사증 또는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제주에서 생활하던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서울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모집한 중국인을 자신들이 일하고 있던 선박의 선원으로 위장시켜 제주도 밖으로 빼돌리겠다는 구상이었다. 1인당 450만원을 받아 똑같이 나누자는 구체적인 계획도 짰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B(48)씨에게 "배에서는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해야한다. 도착하면 도망쳐라"라고 일러주며 선박에 태웠으나 이미 눈치를 채고 추적 중이던 경찰에 발각됐다.

조사 결과 선원으로 일하던 중국인 C(37)씨 외 나머지 3명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내가 아내 죽었다" 112신고...살인혐의 30대 긴급체포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경기도 안성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고, 광진경찰서는 전날 늦은 오후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자택에서 B씨의 사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만취상태로 어선 운항, 완도 해상에서 60대 선장 적발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6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1일 오후 2시 13분께 완도군 청산도 부근 5km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4.4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운항 면허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업 도중 다름을 하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음주 사실이 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의 연행을 수습하여 여객업주 측정을 했다.

# 11년 전 주거침입 성폭행범 DNA 분석으로 범행 규명 징역 8년

## 광주지법 징역 8년 선고·3년간 보호 관찰 등

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1년 전 저질렀던 성폭행 범죄가 들끓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

하고, 3년간 보호 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께 광주 모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A씨의 유전자가 같다'

는 감정 결과에 따라 A씨가 진범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을 산 A씨가 출소 3개월만에 계획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려온 점,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한 점, 시민들에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 죄질이 더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 B씨에

게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점을 토대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카드를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하면 해치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 실제 금품을 몰래 가져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김민정기자

# '잔소리한다' 방화로 형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 징역 9년→7년... "고의성 없고 합의한 점 등 고려"

잔소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하다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정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원·위광하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

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0시 55분께부터 오후 11시 24분 사이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 안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집 안에 있던 자신의 형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같은 날 오후 9시 56분부터 오후 10시 32분 사이 자신의 집 마당에

세워놓은 배우자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내와의 불화에 이어 B씨가 숨 취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의 고통이 회복될 수 없고 범죄 결과가 참혹한 이유를 들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다.

B씨를 살해할 의사 없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가족이 A씨와 합의 뒤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 자신도 2~3도의 화상을 입고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부상에 시달리는 점, A씨가 동종을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